

# 비츠로테크 원주~제천 복선전철 29kV GIS 낙찰

46억원 규모, 2018년 12월까지 납품 예정

비츠로테크가 46억원 규모의 철도용 29kV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물량을 수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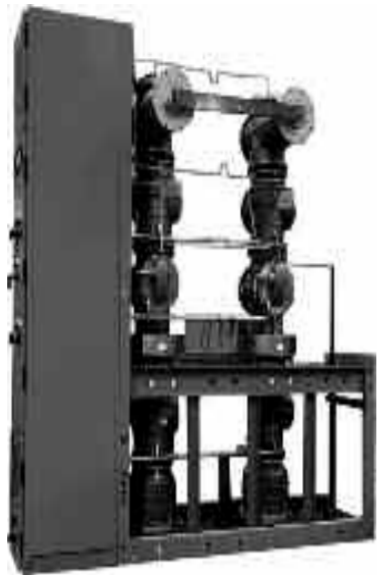
비츠로테크(대표이사 유병인)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원주~제천 복선전철 29kV GIS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주~제천 간 노선에 들어가는 29kV GIS를 제조·공급하는 것으로, 계약 예정금액은 46억8943만원, 납품기한은 2018년 12월까지다.

29kV GIS는 기존에 사용하던 72.5kV GIS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경제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품목이다.

현재 비츠로테크 외에 6개 중견기업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비츠로테크는 철도용 GIS시장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최근 물량까지 수주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비츠로테크가 개발한 29kV GIS<사진>는 29kV 2000A 20kA 정격사양의 상용주파 내전압 95kV/110kV, 뇌충격 내전압 200kV/220kV 제품이다.

비츠로테크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제안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의 신규 및 복선화 노선 건설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달 중에도 29kV GIS 제조구매 입찰이 예정돼 있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일광~태화강 구간에서 55억원 규모의 물량이 나올 예정이며,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에도 구매계약(18억원 규모)이 잡혀 있다.

윤정일 기자 yunji@

## INTERVIEW

윤희중 글로벌 대표

### “全 품목 LED모듈화 유지보수費 감소 소비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시장 공략”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조명을 제공하고, 판매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동반돼야만 환경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요. 글로벌은 전 품목을 LED모듈화해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소비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용 조명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해 온 글로벌(대표 윤희중)이 ‘소비자 중심’과 ‘시장 확대’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2017년 조명 시장 공략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은 해양 케이블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송현 그룹이 포스코LED를 인수해 탄탄한 기반 아래 산업용 조명 특화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윤희중 대표는 지난해 부임 이후 회사 체질 개선과 신규 제품 라인업 구축에 힘을 쏟으며 내실 있는 경영에 집중했다. 2017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반년 이상 준비한 성과물을 쏟아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용 조명 시장에서도 방폭등 분야는 기존 메탈할라이드 조명에서 LED로 전환되는 과도기라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인식이 개선되면서 파쇄적인 방폭등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지요. 실내조명과 일반 실외조명에서 겪었던 효율 경쟁이 시

작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이런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요. 극한의 설치환경에서도 뛰어난 내구성과 견고함을 가진 산업용 LED제품을 설치한 경험과 제조 기술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가 2017년 신규 라인업을 준비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효율화’와 ‘경량화’다. 이를 위해 전 품목을 LED모듈화 시켜 생산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였고, 제품 생산의 표준을 설정해 이를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출시된 글로벌의 ‘NBL(New Bay Light)’ 라인업은 광효율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전력 소비량 감축과 경량화를 동시

에 달성해낸 제품이다.

또 6개 이상의 옵션을 설정 가능하도록 설계해 각 환경과 목적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강점이다.

“산업 조명도 각 업종에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공장을 단일 제품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소비자 맞춤형이라는 시장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공장에 유분과 습기, 먼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제품을 설치한다면 그곳의 조명은 1년 안에 꺼지겠지요. 저희는 장소에 맞춘 환경 맞춤형 제품 솔루션을 제공해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제품 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털어놴. 효율 경쟁과는 별도로 내진 설계, 도장, 코팅 등 각 요소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해 대비 30% 이상의 매출 신장을 목표로 일본, 유럽 등 기존 거래처에서 매출을 확대하고 북미, 동남아 등 신규 거래처를 발굴해 해외사업을 확장하는 등 올해 로드맵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신기술과 재료 기술 개발에 투자해 기술 선도 업체로서의 면모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교 기자 kimsk@

## 기립전기통신, 신개념 배수펌프판넬 ‘주목’

철재 대신 ABS소재 부식문제 해결, 가격경쟁력 갖춰 캐비닛으로 꾸민 SMPC 외함에 탑재 DMPC 단점 개선

기존 배수펌프판넬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신제품이 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계량기함, 월패드박스, 세대단자함 등 외함 전문기업인 기립전기통신(대표 이은길)은 최근 일반 배수펌프판넬의 약점을 개선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기립전기통신의 배수펌프판넬은 우선 소재 자체가 합성수지(PVC) 재질 중 가장 우수한 강도의 ABS AF재질로 만들어졌다.

철재로 만들어져 부식현상에 특히 취약했던 기존 판넬의 약점을 완벽히 해결했다.

이은길 기립전기통신 사장은 “철재 배수펌프판넬은 주로 건물 지하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돼 부식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는 ABS AF재질의 PVC로 외함을 제작해 그런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기립전기통신은 이미 ABS로 계량기함을 개발한 경험이 있어 이 재질을 다루는 노하우가 탁월하다.

이 업체는 2011년 PVC로 만든 노출형 계량기함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통신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기법을 적용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덕분에 기립전기통신 제품은 국내 공공기관 물량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 아파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이 됐다.

이 사장은 “계량기함을 ABS소재로 개발

하고, 같은 재질을 배수펌프판넬에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립전기통신 제품군이 통일성을 갖는 표준기술처럼 보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넬 안에 설치됐던 DMPC(집합단자대) 대신 MCU(모터컨트롤유닛)인 SMPC(스마트모터 프로텍트 컨트롤러)를 자체 개발해 외함 도어에 장착한 것도 기립전기통신만의 차별화된 기술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레벨컨트롤러와 전원, 마그네틱, 콘덴서 등이 집합된 DMPC는 2mm 내외의 작은 볼트로 고정된다. 때문에 작은 볼트가 부식되면 탈락하거나 제 기능을

발휘 못해 DMPC가 작동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 사장은 “볼트 하나라도 탈락하면 DMPC가 작동하지 않는데, 직접 제조한 업체 담당자가 아니면 A/S도 빨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기립전기통신의 SMPC는 커넥터를 컨트롤러에 꽂는 방식이라 볼트의 부식이나 탈락에 대한 우려가 없고, SMPC가 고장 나도 새 제품을 커넥터에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 485통신기능도 탑재돼 있어 연결만 하면 관리사무소 등에서 배수펌프 모니터링과 제어까지도 가능하다.

이 사장은 “가격은 기존의 철재, DMPC를 적용했던 제품과 동등한 수준이지만 A/S와 유지보수 편의성까지 고려하면 경쟁력에서 훨씬 앞선다”면서 “앞으로 공공기관과 일반 아파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일 기자



기립전기통신이 개발한 배수펌프판넬. 이 제품은 철재 대신 ABS재질로 만들어져 부식 문제가 없고, SMPC가 외함 도어에 장착돼 편의성과 유지보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게 특징이다.

## 보쉬, 차세대 배터리 ‘에너지이서’ 출시

유선공구 버금가는 최대 1500W 강력 파워

로버트보쉬코리아 유한회사 전동공구사업부(대표 박진홍)는 18V 파워의 한계를 넘어선 차세대 배터리 ‘에너지이서(EneRacer) GBA 18V 6.3Ah’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8V 충전공구 시장을 선도해온 보쉬 전동공구는 국내 최초로 20700셀을 탑재, 유선공구에 버금가는 파워를 자랑하는 ‘에너지이서’를 통해 18V 충전공구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방침이다.

‘에너지이서’ 배터리는 1500W의 강력한 파워로 동급 최강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기술을 적용해 기존 6.0 Ah 배터리보다 90% 향상된 사용시간을 보장한다. 최상의 작업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작업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보쉬 배터리만의 감성인 호환성도 그대로 적용, 모든 보쉬



보쉬 전동공구에 내놓은 차세대 배터리 에너지이서(EneRacer).

18V 리튬이온 전동공구와 100% 호환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쉬 전동공구를 사용하던 전문 작업자들이 다양한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

로버트보쉬코리아 유한회사 전동공구사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이서 배터리는 보쉬 전동공구의 혁신기술을 집약한 제품으로 충전공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세준 기자 21ss@

The valuable energy for your mind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GLOBAL ELECTRIC POWER TECH 2017**  
May 10 (Wed) ▶ 12 (Fri), 2017, COEX

**동시 개최행사**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 20여개의 전문기술교육, 세미나,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www.electrickorea.org

## 온라인 사전등록 진행중!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시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전시관 구성**

- 전기전력설비관**
  - 송·배전설비 및 관련 기자재
  - 수·배전설비, 분전반, 감시제어반 및 관련 기자재
  - 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 DC전원, 무정전전원장치, 자가발전장치, 연료전지
  - DC배전, DC통신장비, DC서버
  - 전기품질관리설비· 기기 및 관련 기자재
  - 피뢰설비 및 관련 기자재
  - 방송·통신·정보설비 관련 기자재
  - 화재경보, 연기감지, 방재, 방범설비 및 관련 기자재
  - 자산관리 및 상태감시시스템 및 기자재
  - 계측, 시험기기
- ESS산업관**
  - 배터리, 플라이휠, 슈퍼커패시터, CAES, PHES
  - 배터리 관리 시스템
  - 전력변환장치
  - 전력·에너지 관리 시스템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 ESS 제어시스템
  - 배터리생산설비 및 기자재
- 스마트그리드산업관**
  - AMI 인프라
  - 스마트홈·빌딩기술
  - 배전자동화시스템
  - 수요반응·가상발전시스템
- 발전·원자력발전산업관**
  - 화력발전설비 및 기자재
  - 수력발전설비 및 기자재
  - 원자력발전설비 및 기자재
  -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자재
  - 풍력발전설비 및 기자재
  - 조력발전설비 및 기자재
  - 열병합발전 및 관련 기자재
  - 전력저어, EMS 및 관련 소프트웨어
  - 온실가스 저장장치 및 관련 기자재
- LED조명산업관**
  - 램프, 조명장치, 조명제어장치
  - 조명장치 관련 부품·소재
  - 모듈·패널
  - 검사·측정·시험·평가 장비 및 관련 기자재
  - LED생산설비 및 기자재
- 혁신제품 신기술 테마관**

**동시 개최행사**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 20여개의 전문기술교육, 세미나,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부대행사**

-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및 보호와 수익성 극대화 운영기술
- 풍력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시스템의 정부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세미나
- 수·변전설비 운영관리 기술 세미나
- 발전기 및 고압전동기 예측진단 기술 세미나
- 최신 전기설비 접지 및 피뢰 트러블예방대책 기술
- KESCO 전문기그를 기술세미나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 전기감리양성교육 향상 기본과정
- 설계감리연구회 워크숍
- 신기술인증 공공구매 지원시책 순회설명회
- 신기술-신제품 무료설명회
- 에너지저장장치(ESS, PCS)의 응용 및 상용화 기술 세미나
- 직류배전기술의 요소기술 개발사례 및 시장 전망 세미나
- 4차 산업혁명과 전기에너지 IOT 기술세미나
-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연계와 ESS 및 인버터 기술세미나
- 2017년 SG연구회 춘계학술대회
-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관람안내**

- 사전등록 : 홈페이지(www.electrickorea.org)에서 사전등록시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 입장료 : 5,000원
- 관람시간 : 10:00 ~ 17:00(일정 마감 오후 4시 30분)

**문의처**  
02-2182-0728/02-555-7153/02-2284-0020/02-841-0017